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
월보

2026. 1. 5

Strategic Insight

1월 전략: 대형 수출주, 생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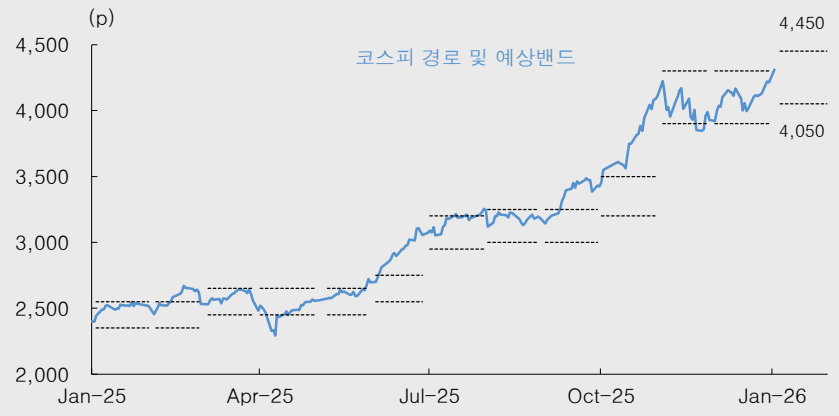
투자전략: 수출주 중심 대응

1월 코스피 밴드로 4,050~4,450p를 제시한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12MF PER 9.6~10.6배, 12MT PBR 1.30~1.42배에 해당한다. 연초 증시는 상승할 전망이다. 수급 환경에 부담이던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올해 기업 실적은 기존대로 주가 상승을 지지할 것이다. 환율과 실적이 도와주는 환경에서 개별종목은 주가 레벨을 더 높여갈 것이다.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업종 선별은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업종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AI 성장 기대와 함께 실적 개선 및 수출 호조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해외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건강관리도 관찰 대상이다. 조선, 방산도 수주잔고를 늘릴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 반면 가전(2차전지), 건설, 통신 등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수 업종은 피해야 한다.

1월에 주목할 이슈는 수출 전망과 시장감시규정이다. 기업은 1분기 수출 전망이 양호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수출국 경기와 수입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봤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과 관련해 제도를 개편했다. 중장기상승 규제 기준을 완화했는데, 해당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시총 100위 이내 대형주는 제도가 아닌 펀더멘털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코스피 경로 및 예상밴드: 4,050~4,450p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목차

I. 1월 전략: 대형 수출주, 생존입니다 1
1. 환율 효과와 실적 개선
2. 수출 전망 호조
3. 시장감시규정 개편
4. 투자전략: 수출주 중심 대응

II. Appendix 16

김대준
daejun.kim@koreainvestment.com

김건우
geonu@koreainvestment.com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1월 전략: 대형 수출주, 생존입니다

1. 환율 효과와 실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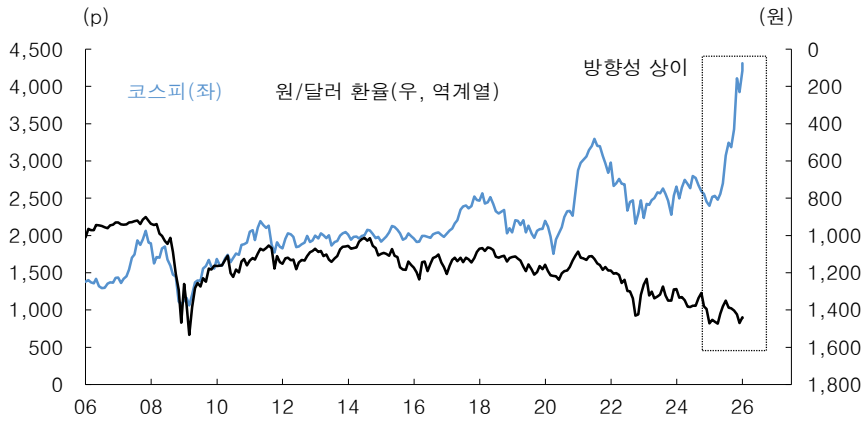
코스피 방향과 관련해 환율 흐름이 중요할 것

연초 코스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첫째, 환율이다. 지난 20년간 코스피는 원/달러 환율과 대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08년과 2020년,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주가와 환율은 동행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는 예년과 달랐다. 환율 상승에도 증시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이 주가를 지지했다. 다만 정책 동력은 점차 약화될 수 있어 환율에 다시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한국 펀더멘털 개선은 원화 강세를 지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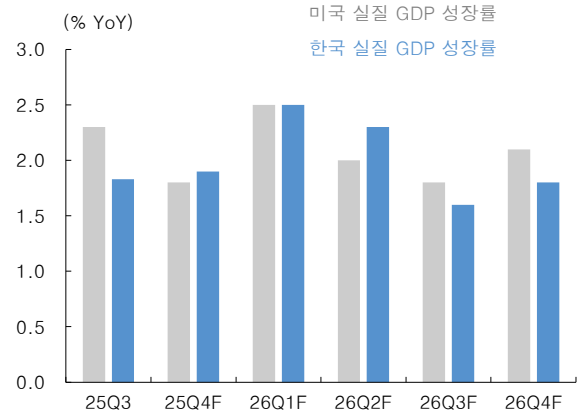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하락할 것이다. 환율 방어와 함께 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원화 강세를 지지할 것이다. 한국은 올해 1~2분기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다. 한미 양국의 성장률 차이를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레벨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림 1]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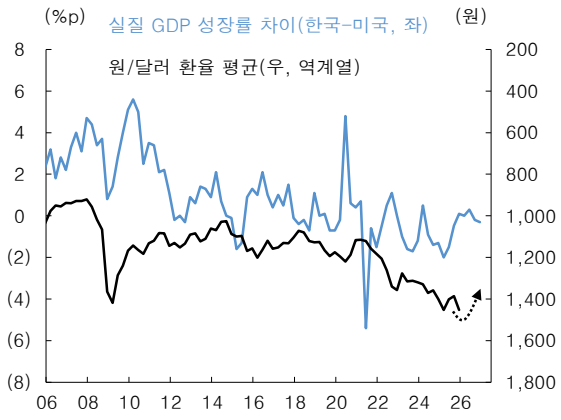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 한미 실질 GDP 성장률



주: 2025년 4분기 성장률부터는 전망치 이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한미 성장률 차이와 원/달러 환율



주: 원/달러 환율은 분기 평균 이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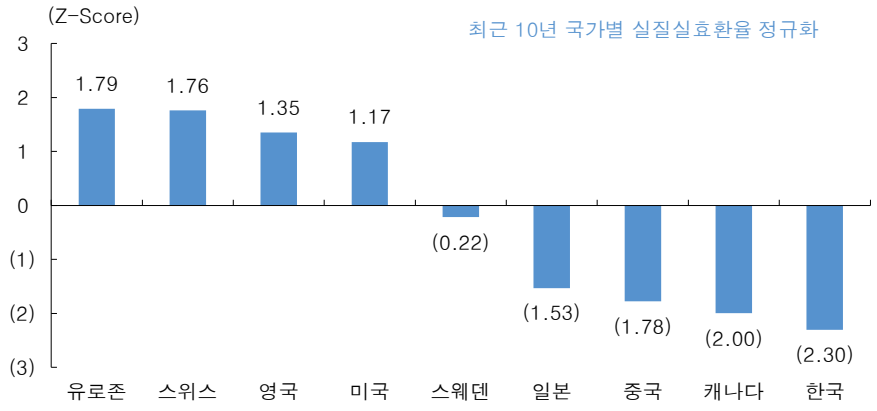
원화 가치의 극단적 하락은 되돌림을 자극할 수 있음

극단적으로 낮아진 원화 가치도 되돌림에 힘을 싣는다. 그동안 원화는 다른 통화 대비 약세였다. 화폐의 단순 교환비율이 아니라 물가와 교역 환경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에서도 가치 하락이 확인된다. 최근 10년 실질실효환율의 정규화 수치를 보면 한국 원화는 -2.30에 불과하다. 달러화나 엔화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수치다. 역사적 맥락에서 지난해 외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컸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가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원화 가치가 안정될 경우 우호적 수급환경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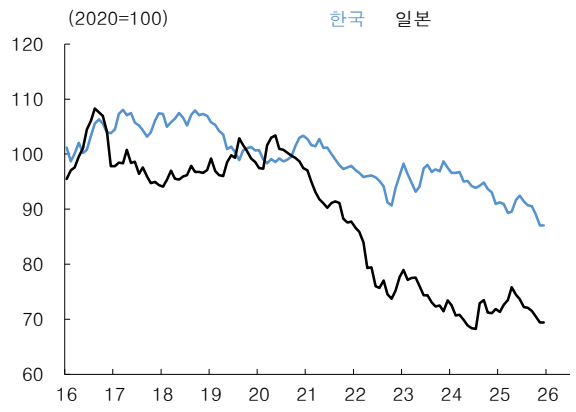
만약 한국 경제가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환율 방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CDS 프리미엄에서 보듯이 환 변동성을 자극할 요인은 눈에 띄지 않는다. VKOSPI로 알 수 있는 주식시장 변동성도 제한적이다. 오히려 해외 유동성이 주가 상승과 원화 강세를 기대하며 국내로 향하고 있다. 연말연시에 나타난 외국인 매매동향이 이를 뒷받침한다. 추후 원화 가치가 지금보다 안정된 흐름을 보여준다면 증시에 우호적인 수급환경 역시 지속될 수 있다.

[그림 4] 국가별 실질실효환율 정규화 수치: 최근 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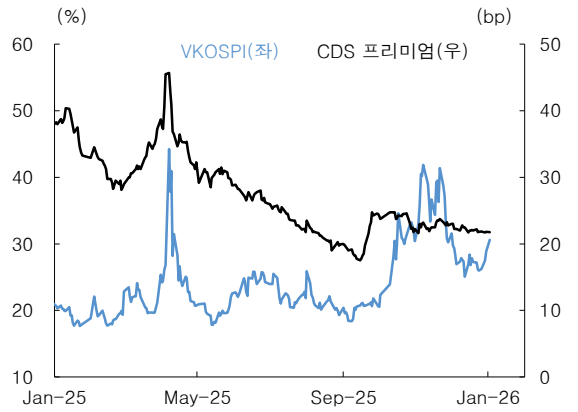
주: 실질실효환율은 2025년 11월 수치 이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국가별 실질실효환율: 한국 & 일본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VKOSPI와 CDS 프리미엄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지난해 증시 강세는 실적이 호재로 작용

둘째, 실적이다. 지난해 9월 이후로 나타난 주식시장 강세에는 실적 전망이 가장 큰 호재였다. 2026년 코스피 순이익의 경우 작년 8월 말 237.2조 원에서 12월 말 309.5조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오라클이 9월 실적 발표에서 대규모 수주잔고를 공개하면서 AI 성장 기대가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AI 수혜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가 코스피 실적 전망치를 크게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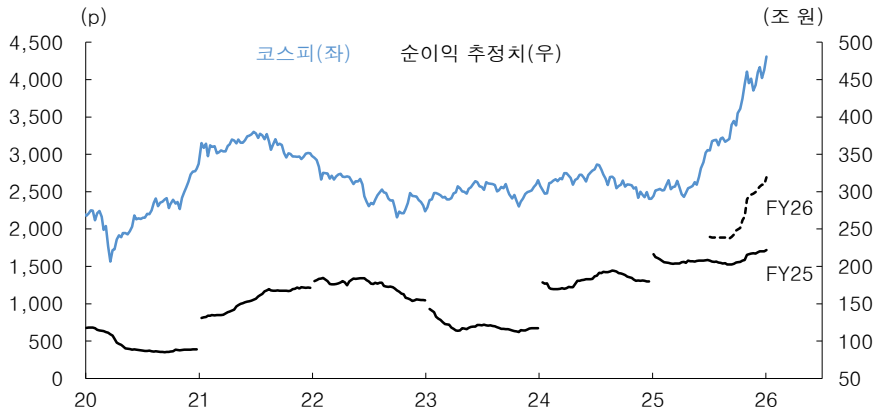
반도체 순이익은 전년 대비 83%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26년 반도체 순이익은 144조 원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83%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수치는 코스피 전체 순이익의 45%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반도체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가가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눈 여겨 볼 업종이다.

업종별 순이익 전망에서 이익 상향 여부를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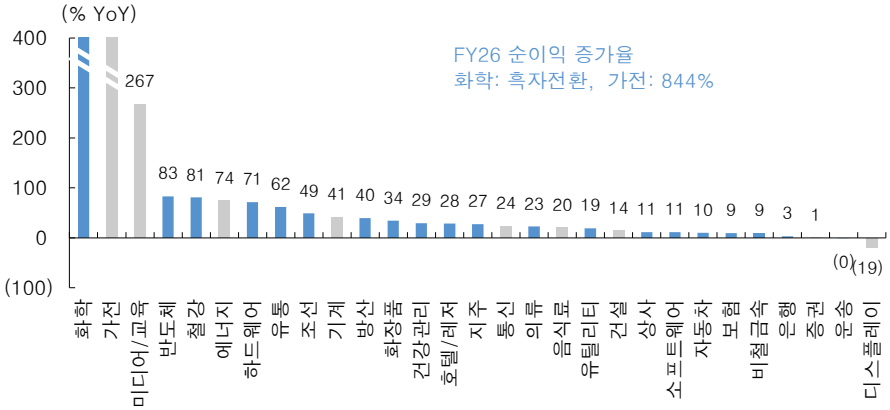
한편 올해는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대폭 오를 전망이라 업종별 순이익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즉, 대부분 업종에서 순이익 증가율이 (+)를 나타낼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익 전망치의 상향 여부를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림 7] 코스피와 연도별 순이익 전망치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업종별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 2026년 기준



주: 청색 음영은 2025년 11월 말 이후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반도체를 가장 주목
AI 성장이 실적에 긍정적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반도체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AI 성장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6년 순이익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말에 비해 11.7% 상향 조정됐다. 특히 이익 상향 조정은 온전히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건강관리, 조선, 방산 등도
이익 모멘텀이 양호

추가로 주목할 업종은 건강관리, 조선, 방산 등이다. 세 업종 모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순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관리는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 호조가 긍정적이고, 조선과 방산은 해외 수주 모멘텀이 견고해 이익 전망치 역시 레벨을 더 높일 수 있다. 해당 업종은 모두 수출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익 모멘텀이 훼손되는
업종은 관심에서 제외

이외에도 이익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는 업종은 관심 대상으로 보는 게 좋다. 하지만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산업은 선순위 투자대상에서 배제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가전(2차전지), 건설, 통신 등은 업황 악화로 이익 하향 조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1> 코스피 업종별 순이익 전망

(단위: 십억 원, %, % YoY, % MoM)

업종	시가총액	시가총액 비중	FY25 순이익	FY26 순이익	순이익 증가율	순이익 변화율
반도체	1,274,061	19.2	78,650	144,041	83.1	11.7
건강관리	198,067	3.0	3,429	4,425	29.1	71.7
은행	187,684	2.8	24,323	25,069	3.1	0.0
자동차	179,201	2.7	26,360	29,070	10.3	0.6
조선	173,557	2.6	7,265	10,816	48.9	12.2
기계	152,193	2.3	3,301	4,664	41.3	(18.7)
지주	137,170	2.1	12,302	15,643	27.2	8.2
소프트웨어	135,760	2.0	6,214	6,900	11.0	0.2
가전	132,769	2.0	311	2,940	843.9	(1.4)
방산	107,417	1.6	3,477	4,854	39.6	27.5
보험	78,688	1.2	8,368	9,147	9.3	6.5
화학	77,789	1.2	(665)	2,510	흑자전환	1.5
증권	76,437	1.2	8,803	8,865	0.7	(1.4)
운송	67,781	1.0	5,364	5,344	(0.4)	0.1
에너지	61,590	0.9	2,699	4,694	73.9	(15.8)
음식료	55,496	0.8	3,567	4,276	19.9	(0.1)
하드웨어	48,953	0.7	1,363	2,335	71.3	1.5
유틸리티	44,950	0.7	10,635	12,681	19.2	0.5
철강	37,225	0.6	1,652	2,986	80.8	1.1
건설	36,883	0.6	3,278	3,747	14.3	(3.6)
비철금속	35,159	0.5	981	1,071	9.2	1.3
통신	30,650	0.5	2,749	3,397	23.6	(0.2)
화장품	30,469	0.5	1,164	1,562	34.2	0.6
미디어/교육	21,160	0.3	205	753	267.3	(0.8)
의류	19,405	0.3	1,673	2,050	22.5	24.8
유통	15,267	0.2	1,006	1,630	61.9	1.7
상사	10,926	0.2	1,139	1,268	11.3	13.6
호텔/레저	10,599	0.2	585	750	28.3	3.1
디스플레이	6,832	0.1	954	773	(19.0)	(0.1)

주: 1월 2일 기준. 순이익 변화율은 25년 11월 말 전망치 대비 변화율. 음영은 순이익 증가율과 순이익 변화율이 모두 (+)인 업종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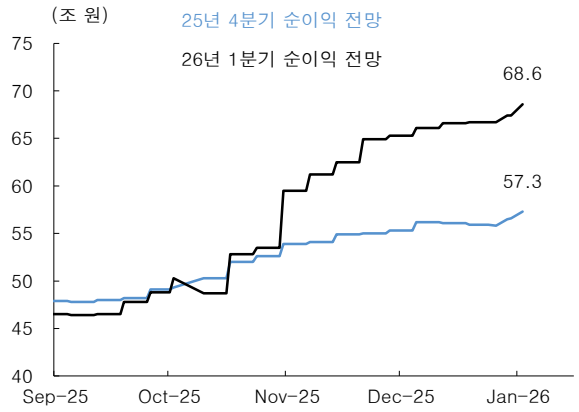
작년 4분기 실적과 관련해 이익 변화 가능성을 주목

한편 연초에는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시즌이 진행된다. 매번 그렇지만 일회성 비용 처리에 따른 이익 변화 가능성과 서프라이즈 유무를 주목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도 작년 4분기 실적에서 부정적인 수치가 나온다면 향후 전망도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4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 비율이 20% 중후반으로 낮기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4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높아지는 업종은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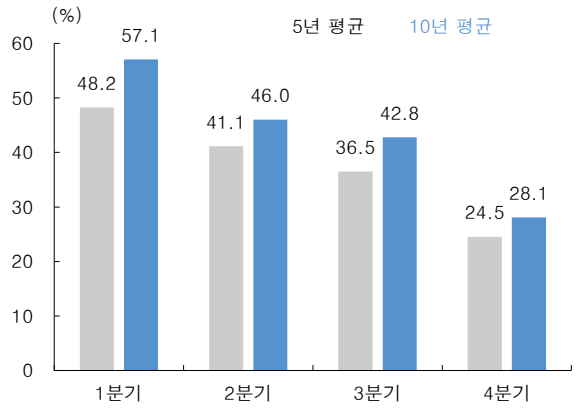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최근 4주 동안 4분기 순이익 전망이 낮아지지 않는 업종이 무엇인지 분류할 필요가 있다. 앞에 언급한 업종인 반도체, 건강관리, 조선, 방산 등은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는다.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화학, 철강, 비철 등 업종은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으므로 경계감이 필요하다. 이처럼 4분기 실적을 통해 향후 실적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림 9] 코스피 분기별 순이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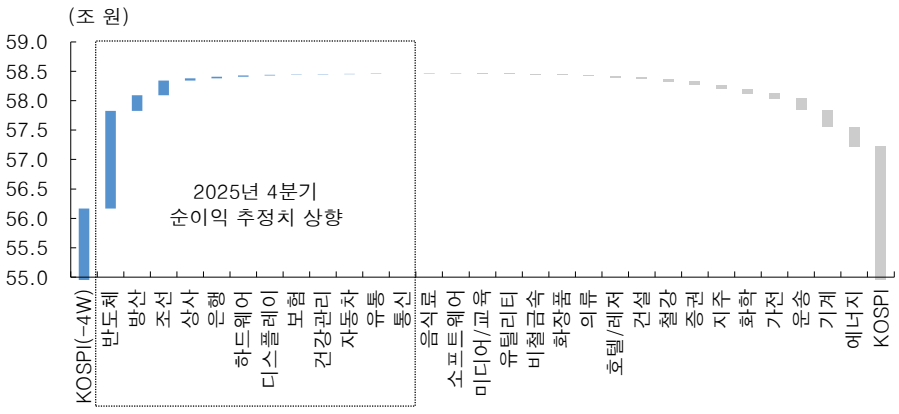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코스피200 분기별 서프라이즈 비율



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 이용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코스피 업종별 4분기 순이익 변화



주: 2026년 1월 2일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2. 수출 전망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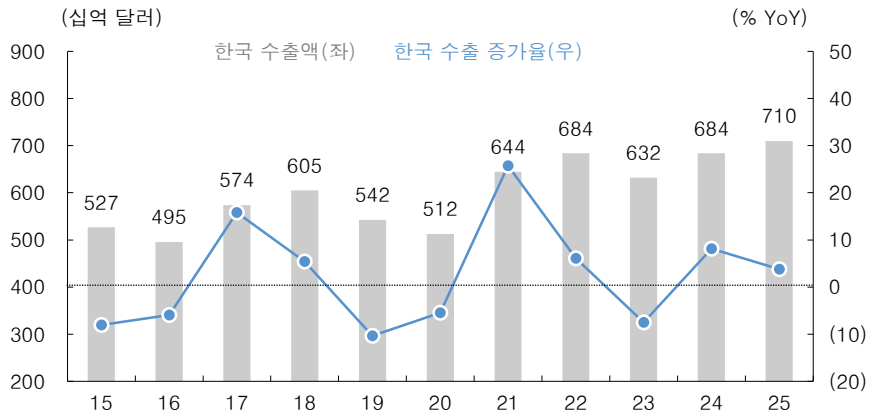
2025년 수출총액은 7천억 달러를 상회

2025년 수출총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수출 환경이 불리하게 변화했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이 수출 호조를 견인했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환율도 수출에 한해서는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은 올해도 수출 호조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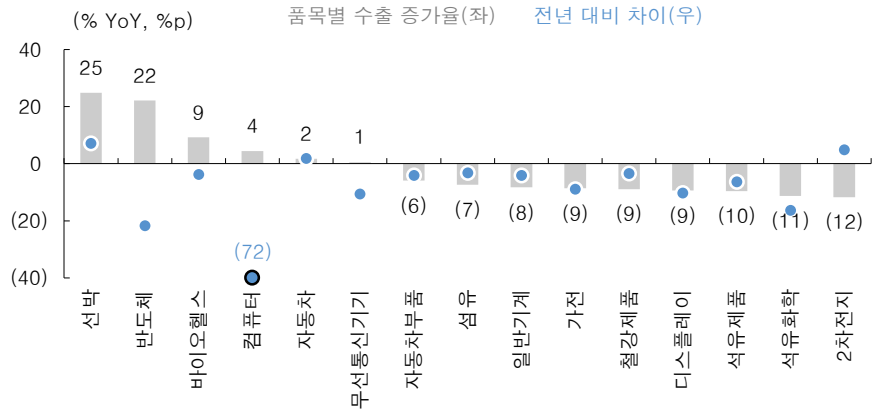
지난해 수출실적이 양호했던 주요 품목은 올해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2025년보다 수출 증가율은 내려갔지만 여전히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은 반도체다. 최근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도체 실적 개선은 수출 호조와도 연관성이 높다. 자동차는 경쟁 심화로 수출 모멘텀이 약화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는 미국 내에서 중국산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림 12] 한국 연도별 수출액 및 증가율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한국 15대 품목 수출 증가율과 전년 대비 차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반도체와 바이오헬스는 월별 수출도 양호한 상황

월별로 수출 실적을 살펴봐도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품목의 수출은 견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도체는 최근 12개월 중에서 작년 3월을 제외하면 모두 (+) 증가율을 유지했다. 바이오헬스는 수출 증가율이 11월 0.1%에서 12월 22.3%로 대폭 개선됐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이 높아진 게 긍정적이었다. 두 산업의 글로벌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수출 환경도 양호할 전망이다.

철강, 화학, 자동차, 2차전지 수출 모멘텀은 올해도 약화

반면 철강, 화학과 함께 자동차, 2차전지는 수출실적이 악화됐다. 전자는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수출단가 회복이 지연된 게 불리했다. 후자는 미국 정책에 악영향을 받았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 수립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줄었고, 자동차 관세 충격이 거세지면서 두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공교롭게도 2026년에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 모멘텀 약화가 예상된다.

<표 2> 한국 15대 품목 수출액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단위: 백만 달러, %)

항목	Dec-24	Jan-25	Feb-25	Mar-25	Apr-25	May-25	Jun-25	Jul-25	Aug-25	Sep-25	Oct-25	Nov-25	Dec-25
수출	61.4	49.2	52.3	58.1	58.0	57.3	59.8	60.7	58.3	65.9	59.5	61.0	69.6
% YoY	6.6	(10.1)	0.4	2.7	3.4	(1.3)	4.3	5.7	1.1	12.6	3.5	8.4	13.4
수입	54.9	51.1	48.3	53.3	53.2	50.3	50.7	54.2	51.8	56.4	53.5	51.3	57.4
% YoY	3.3	(6.1)	0.2	2.3	(2.9)	(5.3)	3.4	0.6	(4.1)	8.2	(1.5)	1.1	4.6
석유제품	4.0	3.4	3.9	3.3	3.7	3.6	3.7	4.2	4.1	4.2	3.8	3.3	4.2
% YoY	(11.6)	(28.2)	(12.4)	(28.7)	(14.3)	(21.3)	0.7	(5.8)	(5.3)	4.5	12.2	(10.2)	6.8
철강제품	2.8	2.6	2.6	2.6	3.0	2.6	2.3	2.7	2.4	2.6	2.3	2.3	2.5
% YoY	2.9	(5.0)	(4.3)	(10.8)	5.4	(12.4)	(8.2)	(3.0)	(15.5)	(4.3)	(21.5)	(15.9)	(10.7)
석유화학	3.9	3.6	3.9	3.7	3.8	3.3	3.4	3.8	3.4	3.8	3.1	3.1	3.5
% YoY	1.8	(11.1)	(0.4)	(9.6)	(11.8)	(18.8)	(13.7)	(9.0)	(17.2)	(1.4)	(21.0)	(12.7)	(8.6)
2차전지	0.8	0.5	0.6	0.6	0.7	0.5	0.6	0.6	0.5	0.6	0.5	0.7	0.7
% YoY	(13.6)	(11.6)	(9.5)	(4.8)	13.8	(18.5)	(19.6)	(21.1)	(31.3)	(8.8)	(14.1)	2.3	(12.8)
일반기계	4.3	3.4	3.9	4.1	4.3	4.1	3.8	4.3	3.5	4.2	3.3	3.8	4.2
% YoY	(7.4)	(21.6)	(12.1)	(3.4)	(6.1)	(5.4)	(7.7)	(17.6)	(10.4)	10.5	(15.9)	(4.1)	(2.0)
선박	3.1	2.5	1.6	3.2	2.0	2.2	2.5	2.2	3.1	2.9	4.7	2.1	3.0
% YoY	(15.6)	(2.2)	(10.5)	51.4	17.3	4.4	64.0	107.7	11.4	22.0	130.9	(17.8)	(2.0)
섬유	0.9	0.7	0.8	0.8	0.9	0.8	0.8	0.8	0.7	0.9	0.7	0.8	0.9
% YoY	(4.5)	(15.6)	(0.7)	(6.0)	(3.4)	(11.9)	(9.8)	(5.5)	(12.6)	7.1	(16.8)	(11.1)	(0.9)
자동차	6.0	5.0	6.1	6.2	6.5	6.2	6.3	5.8	5.5	6.4	5.5	6.4	6.0
% YoY	(5.3)	(19.6)	17.7	1.0	(3.8)	(4.5)	2.3	8.8	8.5	16.8	(10.6)	13.7	(1.5)
자동차부품	1.9	1.6	1.9	1.8	2.0	1.7	1.8	1.9	1.7	1.9	1.5	1.6	1.8
% YoY	5.6	(17.4)	(4.2)	(3.6)	3.6	(9.4)	2.5	(7.2)	(8.8)	6.1	(18.9)	(11.1)	(2.1)
바이오헬스	1.3	1.1	1.4	1.4	1.4	1.4	1.7	1.2	1.1	1.7	1.2	1.4	1.6
% YoY	(2.5)	(0.4)	16.1	7.0	14.6	4.4	36.2	(4.8)	(11.7)	35.6	(6.2)	0.1	22.3
반도체	14.5	10.1	9.6	13.1	11.7	13.8	15.0	14.7	15.1	16.6	15.7	17.3	20.8
% YoY	31.5	8.1	(3.0)	11.9	17.2	21.2	11.6	31.6	27.1	21.9	25.2	38.6	43.2
무선통신기기	1.4	1.2	1.3	1.2	1.5	1.3	1.0	1.2	1.6	1.7	1.8	1.7	1.7
% YoY	16.1	(9.4)	27.4	11.7	26.6	3.8	(3.8)	(17.5)	(14.1)	(7.3)	(10.9)	1.6	24.7
가전	0.6	0.6	0.6	0.6	0.7	0.6	0.6	0.6	0.5	0.7	0.6	0.6	0.6
% YoY	3.7	(17.2)	(4.2)	(7.7)	(4.6)	(14.9)	(15.5)	(12.0)	(11.9)	11.9	(19.7)	(2.4)	(1.5)
컴퓨터	1.5	0.8	0.8	1.2	0.7	1.1	1.3	1.0	1.2	1.3	1.0	1.4	2.0
% YoY	118.2	14.8	28.4	33.0	(15.3)	2.3	15.1	(18.4)	(18.2)	(13.2)	1.7	4.0	36.7
디스플레이	1.5	1.1	1.3	1.5	1.3	1.3	1.1	1.6	1.6	1.7	1.5	1.4	1.5
% YoY	(3.4)	(16.1)	(5.8)	2.9	(7.6)	(17.9)	(36.1)	(9.0)	(9.2)	0.9	(8.7)	(3.0)	0.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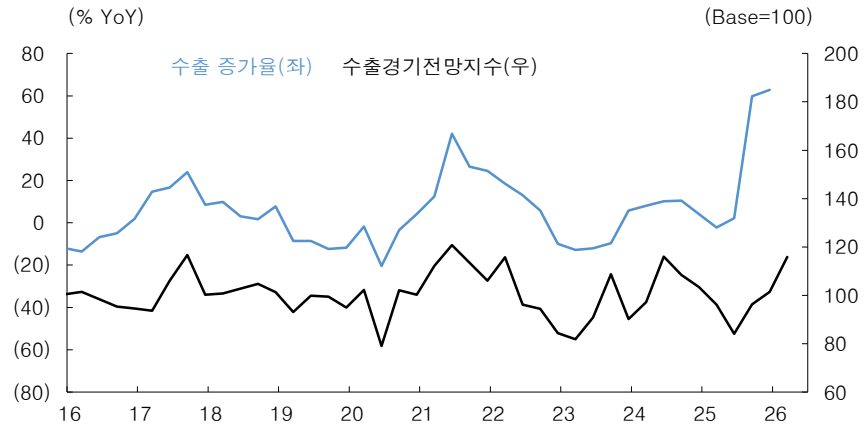
올해 1분기 수출 전망은 전분기보다 개선될 전망

향후 수출 전망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업체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국내 수출기업은 올해 1분기 수출경기에 대해 작년 4분기보다 양호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로 올해 1분기 수출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101.4에서 115.8로 개선됐다. 대체로 수출 증가율과 수출경기전망지수가 동행한다는 점에서 올해 1분기 수출 호조를 예상할 수 있다.

국제물류, 수출국 경기, 수입규제 문제는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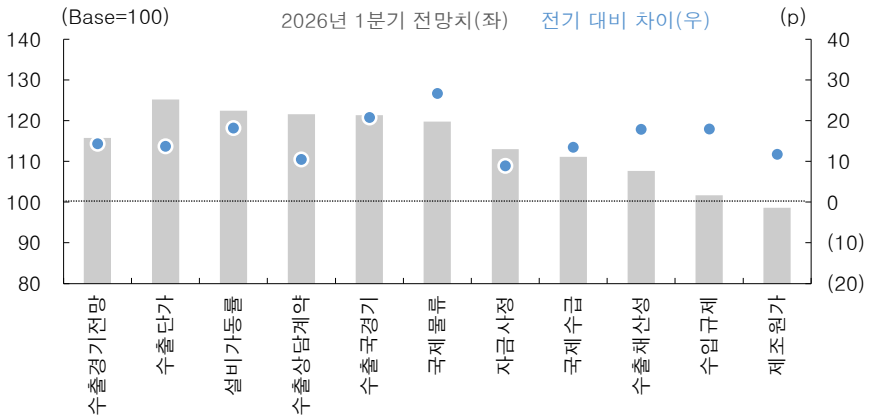
특히 수출 관련 세부항목 중에서 환율 부담이 큰 제조원가 외에는 대부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국제물류환경이 회복된 가운데 수출국 경기와 수입규제 역시 이전보다 나아진 상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도 안정적이다. 상호관세 문제는 미국과 무역대상국 간 합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됐다. 한국 역시 상호관세율을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수출 애로 요인을 해소했다.

[그림 14] 한국 수출 증가율과 수출경기전망지수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수출경기전망지수 새부항목 변화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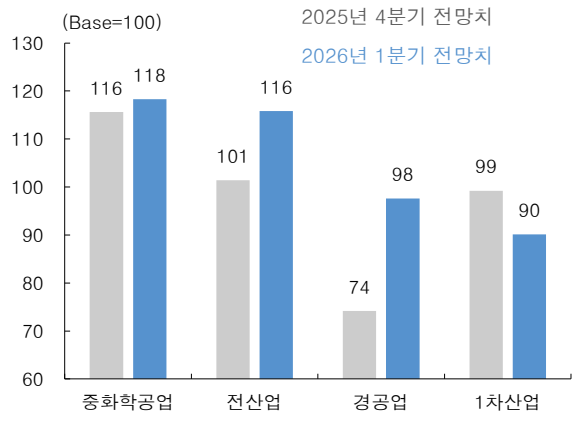
반도체, 선박 등은 수출 호조세가 예상

업종별 1분기 수출 전망은 농수산물 중심의 1차산업 외에는 대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 수출 회복세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반도체와 선박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일 전망이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된다. 따라서 수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선박도 미국과 MASGA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국내 조선사가 단순 제조업체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되면 더 많은 수주잔고를 확보할 수 있다.

원가 상승과 환율 부담에 노출된 업종은 피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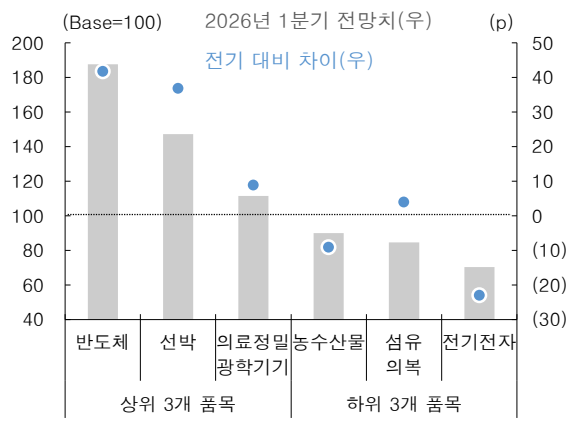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수출 관련 애로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1분기 수출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다. 재료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가공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마진 압박에 노출된다. 특히 산업금속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 조합은 이들에게 치명적이다. 따라서 투자 측면에서도 원가 상승과 마진 축소를 종목 회피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림 16] 업종별 수출경기전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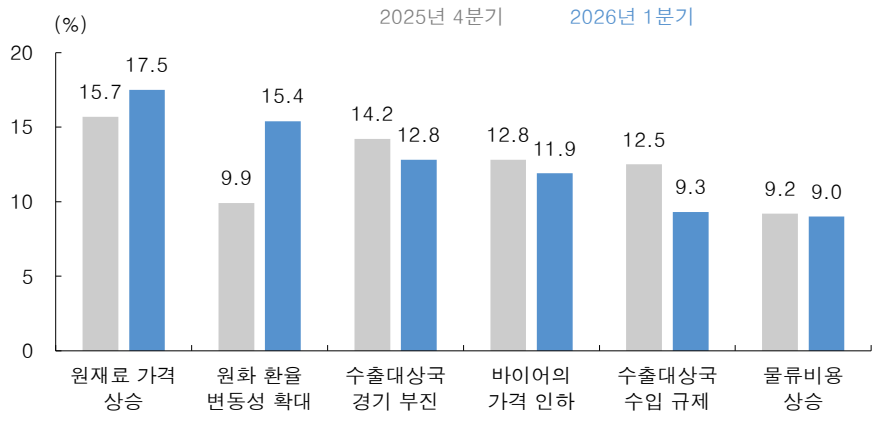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17] 수출경기전망 상위 및 하위 3개 업종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한국 수출 관련 애로 요인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3. 시장감시규정 개편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에 변화를 주는 내용을 발표

2025년 12월 26일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에 변화를 주는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있어 초장기상승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강세장에서 개별종목이 급등하는 건 당연한데,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없는 초우량 대형주까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실제로 작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투자경고종목(보통주)이 12월에 나왔다. 그중에서 시가총액 10위권 종목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0위권 종목은 SK스퀘어, 현대로템이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위탁증거금 100% 납부, 신용융자 매수 불가, 대용증권 불인정 등 제재를 받았다. 제도가 비합리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주가수익률 기준 완화와 대형주 요건 미적용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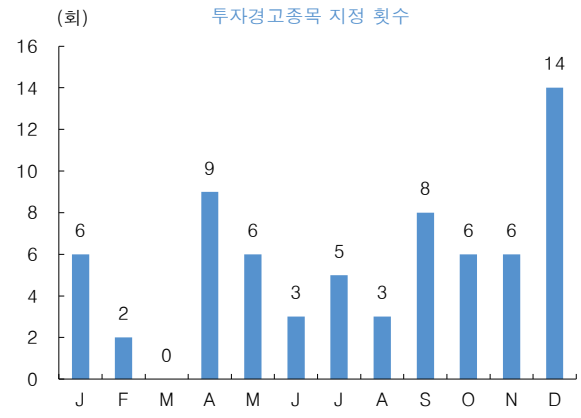
물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다양하다. 다만 2025년에는 주가상승률 200% 이상일 때 제재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핵심은 200% 수익률을 절대수익률에서 시장대비 초과수익률로 변경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을 합산해 시총 상위 100위 종목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대형주 상승 여력을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 3>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투자경고종목

구분	현행	개정안
주가요건	최근 1 년간 종목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	최근 1 년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
지정예외종목	①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②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하여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좌동)
	③ 최근 30 영업일 이내 동 유형으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기지정된 종목	최근 60 영업일 이내 동 유형으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기지정된 종목
	(-)	(신설) 전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 위 대형주 * 유가 및 코스닥시장 통합 시총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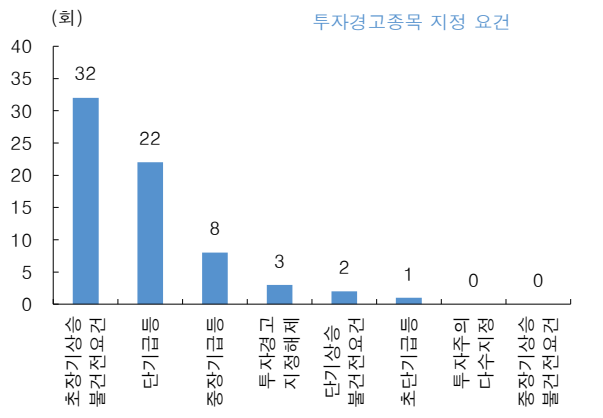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투자증권

[그림 19] 코스피 월별 투자경고종목 지정 횟수



주: 우선주 제외. 지정 요건이 다르면 개별 처리
자료: K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20] 코스피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주: 우선주 제외. 지정 요건이 다르면 개별 처리
자료: KIND, 한국투자증권

투자경고종목 지정과 관련해 거래소의 적절한 조치 필요

한편 단기급등, 중장기급등 등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위한 기존 기준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것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부합한다. 5일간 60% 상승, 15일간 100% 상승은 과열로 인식하기에 무리가 없다. 이러한 종목은 거래소가 적절한 규제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반면 앞에서 언급했던 초장기 상승 요건은 대형주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중소형주도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을 상회하지만 않는다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다.

<표 4> 투자경고종목 지정 기준 및 요건

지정 기준	지정 요건(모두 해당)
1.단기급등	① 판단일(T) 종가가 5 일 전날(T-5)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판단일(T)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 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 일 전날(T-5)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5 배 이상
2.중장기급등	① 판단일(T) 종가가 15 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판단일(T)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 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 일 전날(T-15)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3 배 이상
3.투자주의 다수지정	① 15 일 전날(T-15) 기준으로 5 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같은 기간 주가 상승률이 75% 이상 ② 판단일(T)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 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 일 전날(T-15)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3 배 이상
4.단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① 판단일(T) 종가가 5 일 전날(T-5)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판단일(T)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 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판단일(T) 기준으로 최근 5 일간 다음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 -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 일 이상 - 특정계좌(군)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 일 이상 -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인 일수가 2 일 이상
5.중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① 판단일(T) 종가가 15 일 전날(T-15)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판단일(T)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 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판단일(T)을 기준으로 최근 15 일간 다음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 -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 일 이상 - 특정계좌(군)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 일 이상 -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인 일수가 4 일 이상
6.투자경고 지정해제 (사유 중 하나 해당)	1. 투자경고지정일부터 10 일째 이후 날(T) 종가 기준 ① 5 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이상 상승하지 않음 ② 15 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이상 상승하지 않음 ③ 판단일(T)의 종가가 최근 15 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님 2. 투자경고지정일부터 10 일째 이후 날(T) 종가 기준 ① 판단일(T)의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해제일 전일보다 높음 ② 판단일(T)의 종가가 2 일 전날(T-2)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
7.초단기급등	① 판단일(T)의 종가가 3 일 전날(T-3)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판단일(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 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3 일 전날(T-3)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업종지수) 상승률의 5 배 이상
8.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① 판단일(T)의 종가의 1 년간 초과상승률이 200% 이상 ② 판단일(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 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판단일(T)을 기준으로 최근 15 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 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 일 이상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투자증권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시 주가가 오를 가능성 높음

시장감시규정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본 종목은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두 종목은 12월 29일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되었다. 연초 주가 흐름은 둘 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가 되면 증거금과 신용융자 등에서 제재가 풀리므로 수급이 개선되고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흐름은 과거 현대로템과 SK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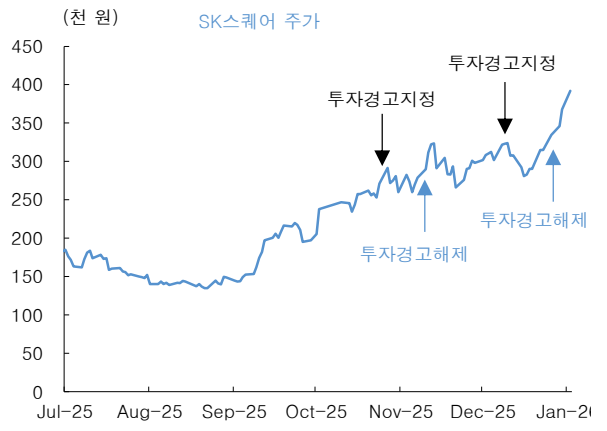
SK하이닉스, SK스퀘어는 초장기상승 제재를 회피

마지막으로 1월 2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최근 15거래일 중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최고가이면서 시장 대비 초과수익률이 200% 이상인 종목은 13개로 확인된다. 그중에서 코스피 종목은 SK하이닉스, SK스퀘어, 계양전기인데, 시총이 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양전기는 이미 투자경고를 넘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원익IPS는 시가총액이 119위이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추가 상승을 통해 시가총액이 100위권으로 높아지면 투자경고 지정기준을 피할 수 있다.

[그림 21] 현대로템: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해제 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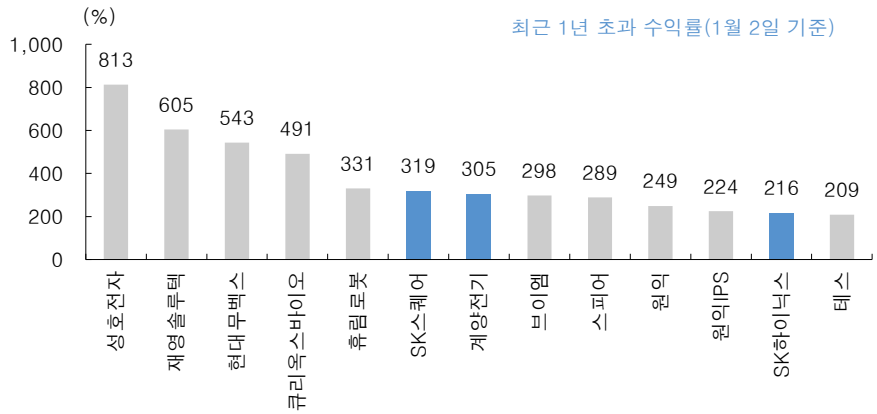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2] SK스퀘어: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해제 후 변화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3] 최근 1년 벤치마크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종목



주1: 최근 종가가 지난 15거래일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기업 대상
주2: 청색 음영은 코스피 상장기업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4. 투자전략: 수출주 중심 대응

코스피: 4,050~4,450p
12MF PER: 9.6~10.6배

1월 코스피 밴드로 4,050~4,450p를 제시한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12MF PER 9.6~10.6배, 12MT PBR 1.30~1.42배에 해당한다. 연초 증시는 상승할 전망이다. 수급 환경에 부담이던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올해 기업 실적은 기존대로 주가 상승을 지지할 것이다. 환율과 실적이 도와주는 환경에서 개별종목은 주가 레벨을 더 높여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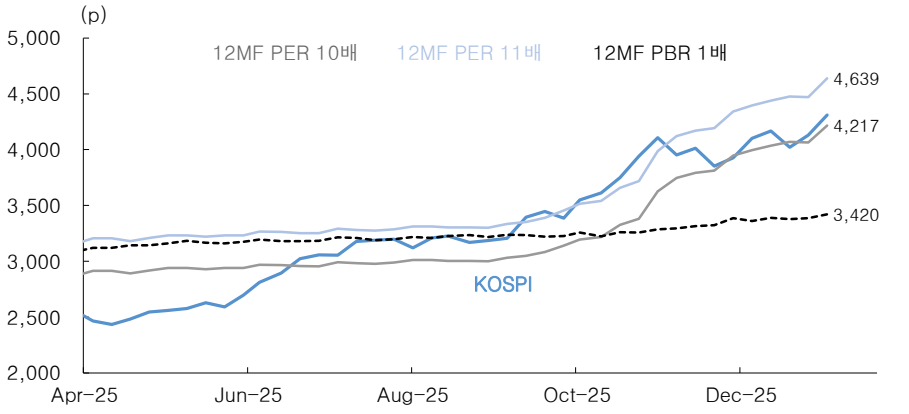
업종 선별이 중요할 것
반도체는 반드시 포함
건강관리, 조선, 방산 관심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업종 선별은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업종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AI 성장 기대와 함께 실적 개선 및 수출 호조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해외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건강관리도 관찰 대상이다. 조선, 방산도 수주잔고를 늘릴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 반면 가전(2차전지), 건설, 통신 등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수 업종은 피해야 한다.

우호적인 수출 전망과
달라진 감시규정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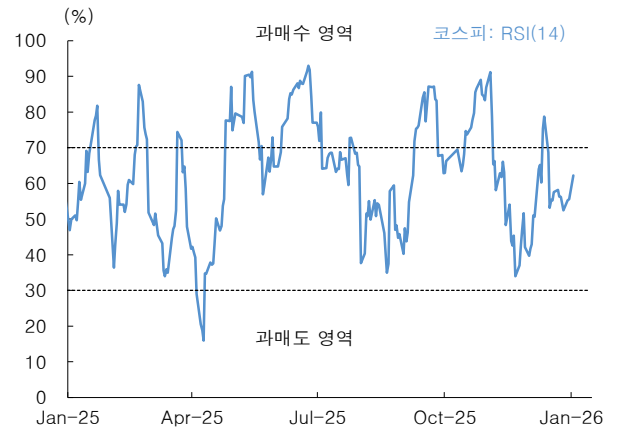
1월에 주목할 이슈는 수출 전망과 시장감시규정이다. 기업은 1분기 수출 전망이 양호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수출국 경기와 수입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봤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과 관련해 제도를 개편했다. 중장기상승 규제 기준을 완화했는데, 해당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시총 100위 이내 대형주는 제도가 아닌 펀더멘털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그림 24] 코스피: 12MF PER 11배를 향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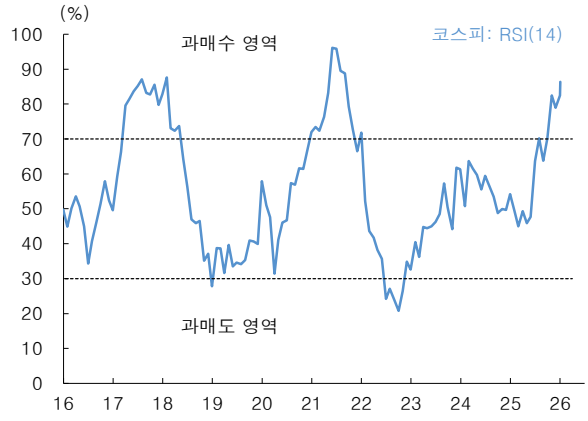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5] 코스피 일간 상대강도(RSI): 가격 부담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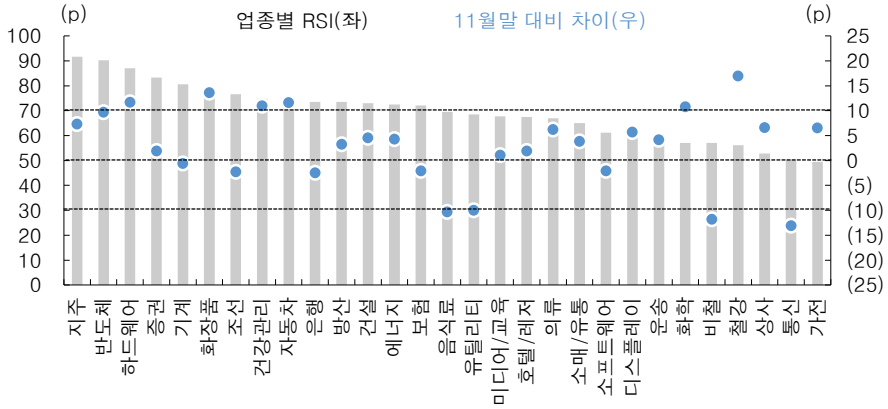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6] 코스피 월간 상대강도(RSI): 장기 과매수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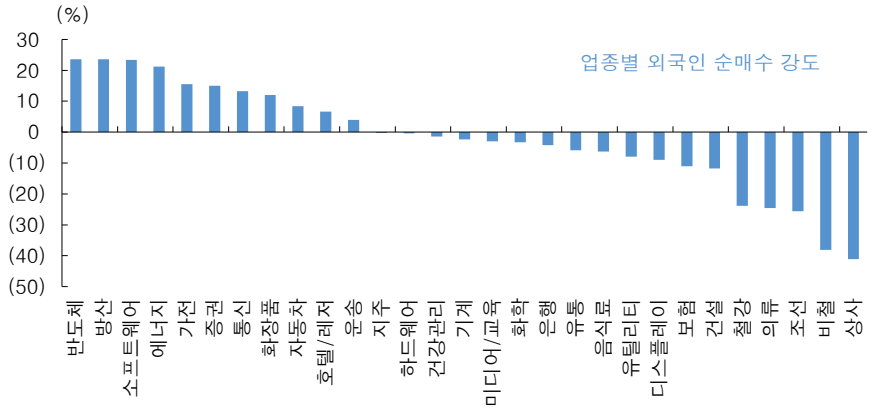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7] 업종별 상대강도(RSI): 지주, 반도체, 하드웨어 강세



주: 1월 2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8] 외국인 순매수 강도: 반도체, 방산, 소프트웨어 순매수



주: 순매수 강도 = 20일 누적 순매수/60일 평균 거래대금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표 5> 2026년 1월 최선호 종목 리스트

종목	현재주가	밸류에이션					투자포인트
	목표주가	연도	PER	PBR	EPS	ROE	
S-Oil	80,300	2026F	11.9	1.0	6,762	8.6	2026년 정제마진은 지속적인 정유설비 부족으로 강세를 지속할 전망
A010950	110,000	2027F	9.3	0.9	8,678	10.3	美 천연가스 가격 강세로 NCC 경쟁력 높아질 것. 샤힌프로젝트 수혜 예상
현대제철	30,600	2026F	9.4	0.2	3,247	2.3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 1년차에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A004020	62,000	2027F	7.3	0.2	4,202	2.9	순수 철강업체 수혜가 가장 클 것. 국내 관세정책으로 2026년 실적도 개선
현대건설	69,000	2026F	14.1	0.9	4,878	6.5	공동주택 착공건수는 부진할 것. 해외 수주 성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A000720	77,000	2027F	10.7	0.8	6,457	8.0	원전 수주 성과가 중요. 동사는 원전으로 해외 수주 사이클을 주도할 것
한화오션	114,700	2026F	25.7	4.9	4,470	21.2	캐나다 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대 고조. MASGA 모멘텀도 존재
A042660	154,000	2027F	20.4	4.0	5,610	21.5	미 군함 신조 수주, Hanwha Futureproof를 통한 현지 투자 성과에 주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46,000	2026F	20.4	4.4	46,282	24.1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중심으로 K9과 천무 수출이 확대될 것
A012450	1,500,000	2027F	16.1	3.5	58,687	24.3	미국 공장 구축 및 미 육군과 연구개발 협정 체결. 미국 시장 진출 가속화
대한항공	22,200	2026F	8.4	0.7	2,658	8.5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으로 2026년 과점적 지위에 대한 재평가가 예상
A003490	30,000	2027F	6.9	0.6	3,206	9.6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20% 상회할 것. IT 화물 서프라이즈 덕분
현대차	298,500	2026F	6.8	0.6	43,652	9.6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역량 및 스마트카 출시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A005380	360,000	2027F	6.4	0.6	46,499	9.5	CES 2026에서 차세대 Atlas 시연. 로보틱스 로드맵도 추가로 발표할 것
스튜디오드래곤	46,550	2026F	32.4	1.7	1,438	5.5	제작 편수가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도 높아질 것
A253450	60,000	2027F	25.5	1.6	1,824	6.6	신규 IP 사업 확장에 따른 실적 업사이드도 부각될 전망
이마트	80,200	2026F	8.8	0.2	9,124	2.3	홈플러스 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이마트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
A139480	115,000	2027F	6.6	0.2	12,169	3.1	쿠팡 이슈 장기화로 쓱닷컴의 상대적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음
코스맥스	178,000	2026F	14.3	3.2	12,432	24.7	코스맥스는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상태(12MF PER 13.6배)
A192820	300,000	2027F	12.1	2.6	14,673	23.6	중일 갈등이 장기화 시 코스맥스 중국 공장의 생산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음
삼양식품	1,276,000	2026F	17.4	5.7	73,250	38.2	밀양 2공장은 수출 물량 증가에 기여. 중국 공장도 2027년 상반기에 가동
A003230	2,000,000	2027F	14.3	4.2	89,263	33.5	국내 업체 중에서 해외 사업 성장성과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
코오롱티슈진	71,500	2026F	na.	48.0	(457)	(31.8)	1월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잠재 파트너와 TG-C 상업화 협의할 것
A950160	150,000	2027F	na.	51.3	(481)	(33.3)	릴리 레타트루타이드 임상 성공 발표로 무릎 골관절염 DMOAD 관심 고조
신한지주	76,600	2026F	7.0	0.6	10,985	8.8	자회사 수익성 개선과 주주환원 고도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
A055550	96,000	2027F	6.7	0.6	11,435	8.8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될 것. 감액배당 실시 가능성도 기대
키움증권	301,500	2026F	7.0	1.1	43,062	17.1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수혜가 가능할 것
A039490	350,000	2027F	6.8	1.0	44,693	15.7	발행어음 신사업이 본격화되며 자본활용 IB 및 PI 부문 이익도 성장
현대해상	30,550	2026F	3.1	0.4	10,008	17.0	실적, K-ICS 비율, 듀레이션 갭 등 우려 요인들이 해소되는 국면
A001450	36,000	2027F	2.7	0.4	11,410	16.9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발표 시 배당 재개로 멀티플 재평가 기대
삼성에스디에스	175,100	2026F	15.5	1.3	11,306	8.6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구미 DC 완공되는 28년 이후로 전망
A018260	230,000	2027F	14.1	1.2	12,380	8.8	2026년부터 밸류에이션 상승과 실적 개선 잠재력이 부각될 것
엔씨소프트	216,500	2026F	14.0	1.2	15,513	9.5	밸류에이션 상승을 위해서는 PC와 콘솔에서의 성과 입증이 중요
A036570	280,000	2027F	11.5	1.1	18,819	10.6	구조적 관점에서 관련 작품 출시가 지속될 대형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
삼성전기	270,000	2026F	21.8	2.0	12,368	9.9	영업 레버리지, 제품 Mix는 고부가가치 산업/전장용 MLCC 중심으로 재편
A009150	310,000	2027F	18.2	1.8	14,843	10.9	서버 수요 본격화로 70% 내외 FC-BGA 가동률이 2026년에는 완전 가동
SK하이닉스	677,000	2026F	7.5	2.7	90,352	46.2	디램뿐 아니라 낸드에서도 원가 및 ASP 경쟁력 최우수
A000660	700,000	2027F	6.8	1.9	100,001	35.1	앞서있는 HBM 제품 라인업으로 섹터 내 하이닉스 독주 막기 어려울 전망
피에스케이	38,900	2026F	12.3	1.8	3,176	15.6	삼성전자 평택 P4향 장비 수주는 증가세. 4분기에도 매출 대부분을 차지
A319660	52,000	2027F	10.7	1.5	3,625	15.4	2026년 초부터 M15X 장비 반입 시작되며 매출 증가 가속화될 전망
KT	51,300	2026F	8.8	0.7	5,816	8.3	신임 CEO 선임에 따른 B2B 성장 및 추가 정책 기대감 고조
A030200	69,000	2027F	8.3	0.7	6,178	8.4	최종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로 리스크 해소 국면이 전개

주: 1월 2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II. Appendix

1. 한국 12월 동향 및 이익 추정치 변화

코스피는 전월 대비 7.32% 상승한 4,214.17p로 마감했다(30일 기준). 미국 금리 인하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 힘입어 전고점에 근접했다. 연준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다. 다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며 금리 불확실성은 확대됐다. AI 회의론은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해소됐다. 한편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했다. 그 결과 증시 수급 환경도 일부 회복됐다.

<표 6> 월간 섹터별 수익률과 밸류에이션, 이익 추정치 변동

	시가총액 비중	MTD	YTD	12MF EPS 1M chg	1M이익수정비율	12MF PER	12MF PBR	EV/EBITDA	Z-Value
에너지	1.7%	(3.61)	43.61	9.63	4.08	13.38	0.67	7.09	0.97
소재	4.7%	(0.73)	30.67	5.84	(1.25)	19.63	0.70	6.97	1.35
- 화학	2.7%	(1.55)	36.34	10.78	(0.69)	26.55	0.81	7.29	1.66
- 비철금속	0.9%	(0.52)	32.65	1.55	(9.09)	26.77	2.57	15.85	1.04
- 철강	1.0%	1.04	21.31	3.29	0.00	11.38	0.38	4.98	0.39
산업재	19.1%	2.39	98.90	3.83	1.63	14.00	1.65	8.31	1.37
- 건축자재	0.3%	1.61	19.23	(8.44)	0.00	9.73	0.55	6.40	0.53
- 건설	0.8%	2.26	50.82	3.99	0.85	6.80	0.53	3.82	0.78
- 복합기업	3.4%	6.13	145.35	6.68	6.85	8.56	0.97	8.58	0.78
- 기계	2.6%	1.34	184.79	0.32	(2.33)	35.43	2.84	15.91	2.23
- 조선	4.7%	(0.14)	98.24	4.50	0.00	16.19	3.19	7.68	(0.81)
- 운송	1.8%	6.23	18.38	(0.03)	0.87	10.30	0.74	4.70	2.02
경기소비재	7.7%	4.51	28.38	1.54	3.47	6.83	0.64	5.96	2.41
- 자동차/부품	4.9%	7.77	31.61	1.13	3.48	5.79	0.57	6.08	2.75
- 섬유/의류	0.6%	2.28	20.15	3.05	1.43	7.41	0.81	3.70	1.36
- 화장품	0.9%	(6.22)	31.81	2.51	0.80	16.50	1.51	7.49	(0.00)
- 호텔/레저	0.3%	3.01	35.20	3.62	7.02	13.17	1.11	8.06	0.32
- 유통	0.5%	0.11	27.24	4.04	5.61	9.11	0.39	5.71	(0.01)
- 교육	0.1%	(0.61)	(0.40)	2.97	14.29	8.40	0.72	3.32	0.10
필수소비재	1.7%	(1.76)	26.87	1.10	(1.31)	10.69	1.03	5.40	0.61
- 음식료/담배	1.7%	(1.83)	27.15	1.07	(1.37)	10.77	1.03	5.45	0.59
- 가정용품	0.0%	3.93	(8.72)	0.00	0.00	0.00	0.00	0.00	(0.30)
헬스케어	9.7%	(2.87)	33.52	0.44	0.34	40.07	4.00	25.24	0.40
- 건강관리	1.2%	(4.98)	7.11	4.11	3.90	18.41	2.88	12.35	(0.26)
- 제약/바이오	8.4%	(2.49)	38.93	(0.49)	(0.94)	43.71	4.11	27.11	0.37
금융	9.2%	1.64	53.29	0.24	1.36	7.42	0.70	8.51	1.52
- 은행	4.5%	1.22	55.79	0.38	2.14	7.06	0.62	0.00	1.48
- 증권	2.0%	1.91	69.43	0.29	5.26	7.15	1.03	0.00	0.95
- 보험	2.1%	3.38	45.18	(0.07)	(5.71)	8.57	0.73	0.00	2.10
IT	40.6%	11.64	118.35	8.75	4.41	9.88	1.78	5.22	(1.08)
- 인터넷/SW	1.7%	0.63	27.00	1.47	(1.11)	18.56	1.79	7.66	0.53
- 하드웨어	2.1%	(0.64)	55.78	6.58	5.50	18.12	1.90	8.48	2.07
- 반도체	31.9%	14.30	147.48	9.08	6.42	8.62	1.76	4.66	(0.88)
- 디스플레이	0.4%	(3.66)	7.06	(1.100)	8.57	8.78	0.79	3.14	0.14
커뮤니케이션서비스	4.3%	(1.74)	15.39	0.96	(2.17)	14.83	1.25	5.82	(1.35)
- 통신서비스	0.8%	2.10	14.39	1.46	0.00	9.22	0.80	3.55	0.73
- 미디어	3.5%	(2.54)	15.70	0.72	(2.49)	17.52	1.46	8.34	(2.32)
유틸리티	1.2%	(5.92)	91.19	1.79	1.96	3.51	0.56	5.65	0.11
- 전기	1.0%	(6.72)	114.00	2.22	2.94	3.34	0.62	5.06	(0.03)
- 가스	0.2%	(0.82)	18.07	(0.87)	0.00	4.74	0.38	8.88	0.31

주: 12월 26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2. 국내 펀드시장 동향

국내 주식형 펀드는 설정액이 모두 증가했다. 코스닥 활성화 수혜 기대에 중소형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됐다. 연말 배당매력이 부각되며 배당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2개월 연속 늘어났다. 미국 금리 인하 결정에 해외 주요지수 펀드로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 마이크론 실적 호조로 반도체 펀드에도 자금이 들어왔다.

<표 7> 유형별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

	설정액(억 원)				설정액 증감(억 원)			
	일반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일반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2025년 01월	90,379	7,912	103,433	25,733	(310)	(39)	(1,286)	(385)
2025년 02월	89,716	7,862	106,057	25,008	(663)	(49)	2,623	(726)
2025년 03월	90,050	7,914	107,059	24,722	334	52	1,002	(286)
2025년 04월	90,777	7,942	110,984	25,057	728	27	3,925	336
2025년 05월	91,039	7,745	109,317	25,413	262	(197)	(1,667)	356
2025년 06월	91,195	7,710	104,340	25,186	156	(35)	(4,977)	(227)
2025년 07월	93,824	8,044	105,475	26,247	2,629	335	1,135	1,061
2025년 08월	94,173	8,024	106,223	26,186	349	(20)	748	(61)
2025년 09월	91,722	7,751	107,615	25,967	(2,451)	(273)	1,392	(219)
2025년 10월	91,245	7,504	108,881	25,492	(477)	(247)	1,265	(474)
2025년 11월	93,435	7,537	114,556	25,636	2,190	33	5,675	143
2025년 12월	93,515	7,706	116,136	25,810	80	169	1,580	174

주: 2025년 12월 데이터는 26일까지의 집계분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표 8> 2025년 12월 주요 설정액 증감 펀드

(단위: 억 원)

	회사명	펀드명	투자지역	증감액	설정원본
설정액 증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미국S&P5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해외	8,248	126,176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 MSCI KOREA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6,690	16,083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반도체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6,335	24,802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미국S&P5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해외	6,014	71,480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MSCIKOREA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5,844	29,049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4,701	112,220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200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3,616	39,893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미국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해외	3,117	46,583
설정액 감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2,404)	498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코리아배당다우존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2,365)	4,306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1,544)	6,335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자동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1,229)	4,208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코리아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823)	12,508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코리아원자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763)	2,226
	케이비자산운용	KBRISEAI플랫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717)	224
	신한자산운용	신한SOL의료기기소부장F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622)	582

주: 2025년 12월 26일 기준, 설정원본 1천억원 이상 공모 주식형 펀드 대상. 단 2016년 이후 설정된 펀드는 설정원본 1천억원 미만도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2026년 1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	2
			[한국] 12월 수/출입 12월 무역수지 신정 휴장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신정 휴장	**[한국]** 12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미국]** 12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유럽]** 12월 S&P글로벌 제조업 PMI(확정) **[일본]** 신정 연휴 휴장
5	6	7	8	9
[미국] 12월 ISM 제조업 PMI 12월 ISM 제조업 가격 지수 **[중국]** 12월 차이신 서비스 PMI	**[미국]** 12월 S&P글로벌 서비스업 PMI(확정) CES 2026(1/6~1/9) **[유럽]** 12월 S&P글로벌 서비스업 PMI(확정)	**[미국]** 12월 ADP 비농업 고용 변화 12월 ISM 서비스업 PMI 11월 JOLTs 고용보고서 10월 내구재 주문(확정) 10월 근원 내구재 주문(확정)	**[미국]** 실업수당청구건수	**[미국]** 10월 건축허가, 주택착공(예비) 12월 실업률 12월 비농업 고용 변화 12월 시간당 평균임금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예비) **[중국]** 12월 신규 대출 12월 수/출입
12	13	14	15	16
[미국]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1/12~1/15) **[일본]** 성년의 날 휴장	**[미국]** 12월 근원/헤드라인 CPI 10월 신규주택매매	**[미국]** 11월 근원/헤드라인 PPI 11월 소매판매 11월 근원 소매판매 12월 기존주택매매	**[한국]** 한국은행 금통위 **[미국]** 실업수당청구건수 1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미국]** 12월 산업생산
19	20	21	22	23
[미국]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장 **[유럽]** 12월 근원/헤드라인 CPI(확정)	**[한국]** 12월 근원/헤드라인 PPI **[중국]** 5년물 LPR 금리결정 1년물 LPR 금리결정 **[유럽]** 1월 독일 ZEW 경제심리지수	**[미국]** 12월 잠정주택매매	**[한국]** 4분기 GDP(속보) **[미국]** 실업수당청구건수 3분기 GDP(확정) 3분기 GDP 물가지수(확정)	**[미국]** 1월 S&P글로벌 제조업 PMI(예비) 1월 S&P글로벌 서비스업 PMI(예비)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확정) 1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확정) **[유럽]** 1월 S&P글로벌 제조업 PMI(예비) 1월 S&P글로벌 서비스업 PMI(예비) **[일본]** 12월 전국 근원 CPI BOJ 통화정책회의
26	27	28	29	30
[미국] 11월 내구재 주문(예비) 11월 근원 내구재 주문(예비)	**[미국]** 11월 S&P C/S 주요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 1월 리치몬드 제조업지수 1월 CB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FOMC 금리 결정	**[미국]** 실업수당청구건수 12월 근원/헤드라인 PCE 11월 내구재 주문(확정) 11월 근원 내구재 주문(확정)	**[미국]** 12월 근원/헤드라인 PPI 1월 시카고 PMI **[유럽]** 4분기 GDP(속보) **[일본]** 1월 도쿄 근원 CPI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